

“수험표 받으니 정말 실감...좋은 결과 얻고 싶어요”

●‘2025 수능 D-1’ 광주 광덕고가보니

마지막까지 요약본·오답노트 등 살피며 ‘목표 달성’ 열의
‘의대 도전’ 재수생 모교 발길도...시험장·배치도 등 확인

“수험표를 보니 정말 실감내네요.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광덕고등학교. 마지막 자습 시간까지 수험생들은 그간 배웠던 것의 정수를 담은 ‘요약본’과 오답 노트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밀려오는 잠을 쫓기 위해 복도로 나와 서서 문제를 풀었고, 친구들과 서로 암기한 것을 맞춰 보기도 했다.
이후 수험표 배부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보던 것들을 정리하고, 담임 선생님의 안내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학생들은 “진

짜 실감이 난다”거나 “빨리 끝났으면 한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고사장이 가까운 학생들과 달리 생소한 곳에서 시험을 보게 된 학생들은 “집에서 멀어 큰 일이다”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수험표 배부가 끝난 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책상 내부에 위반 물건 있는지 꼭 확인하기 ▲늦지 않도록 일찍 가기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 확인하기 등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학생들은 “그간 고생했다 내일 웃으면서 보자”거나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해”라는 등 서로를 격려하며 화해했다.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 박성진(19)군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시험의 끝이 다가왔다는 후련함이 교차



시험장 확인하는 수험생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광주 광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한다”며 “목표로 하는 서울대에 대한 단기로 기억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려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장재영(34) 광덕고 3학년6반 담임교

사는 “시험은 끝이 아닌 수많은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제자들에게 응원의 말을 보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진학을 꿈꿨던 이들에게 기회로 다가온 만큼 수험표 수령을 위해 모교를 찾은 재수생들도 보였다.
광덕고 졸업생 이모(25)씨는 “의대 정원 증원 소식을 듣고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수능 준비를 다시 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일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소망했다.
오후 2시께부터 시험장 확인을 위해 학교를 찾은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잇따랐다. 다만, 실제 출입은 안 돼 정문에 붙여진 배치도만 보고 나서 돌아가야만 했다.
동성고등학교 3학년 박찬혁(19)군은 “수능이 특별한 시험이긴 하지만,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시험을 치러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사적 제재’ 논란 유튜브 구속영장 기각

음주운전 의심 차량 쫓던 중 사망사고 연루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다가 사망사고에 연루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브가 구속영장을 ‘일단’ 넘겼다.
1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폭력형 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A(41)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 없음’,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는데,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다른 유튜브에 의해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3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한 교통사고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30대)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추격에는 그의 구독자들도 함께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B씨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사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추격전에 합류했던 A씨의 구독자 5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A씨처럼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브의 활동을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A씨는 B씨의 사망 사건 외에도 지난 8월 광주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음주 의심 운전자를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감금)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씨와 그의 구독자들은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를 쫓아가며 위협하다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협행위) 혐의 등으로 송치된 바 있다. /안재영 기자

‘음주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

‘음주 뺑소니’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

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쓰레기 소각장, 찬성 지역에 설치”

광주시농민회 “농촌 공동체 파괴”...‘신청 방식’ 재검토 촉구

광주지역 농민들이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1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의 비민주적인 쓰레기 소각장 공모 방식을 반대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소각장 유치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나서서 찬성하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지원금을 내세워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각장 유치를 경쟁시켜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회는 또 “상무 소각장을 폐쇄한 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고함과 환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농촌 주민들을 무시한 채 고공만을 강요하는 광주시의 졸속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타 지역 소각장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역시 하루 40을 소각하는 소규모 시설로, 광주시가 건설하려는 1일 600t 소각 시설과는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뒷받침 되는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며, 농촌 지역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농업 환경을 파괴하는 소각장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산구와 서·남구는 최근 자원회수시설 유치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후보지로 제출된 6곳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뒤 환경부에 적격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전남지노위 “GGM, 직원 징계 부당”

‘작업장 내 의자 사용 중단지시’ 거부에 정직 1개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작업장 내 의자 사용 중단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내린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 등에 따르면 전남지노위 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지난 11

일 열린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 심판에서 GGM 직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6월 생산 라인에서 간이 의자를 치우라는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했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GGM은 징계와 함께 A씨가 맡았던

파트장 직책을 해임했는데, 전남지노위는 이 또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서서 일하는 작업자가 작업 중 앉을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제시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GGM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맡고 있어 노조 출범으로 벗어난 노사 간 갈등이 이번 징계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주성학 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사제·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 구장)
- 골프채·골프용품 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